

보도분류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보도일시	2021. 12. 8.(수)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 성 과	스마트시티과
담 당	과장 전윤희, 스마트전략팀장 구병길, 담당 김종원 · 이미영(032-453-7464)

“지금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적기...”

펠르앵 전 장관 기초 연설서 밝혀... ‘스타트업 통한 스마트시티 혁신’ 국제심포지엄 성료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 관련 프랑스와의 협력은 많은 시너지 창출” 의견도 제시

이원재 인천경제청장 “스타트업 분야 빠른 성장세 프랑스와 정책·경험 나눔 의미 큰 행사”

- 국내 최대 스타트업 지원 공간인 인천 스타트업파크가 공식 개소 1년여 만에 글로벌 진출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유럽에 진출할 적기이며 또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과 관련한 프랑스와의 협력은 많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주한 프랑스대사관, 비즈니스 프랑스, 한불상공회의소, 인천글로벌캠퍼스 스탠포드 한국센터 등과 함께 국내 및 프랑스 기관·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7일 송도국제도시 경원재엠배서더 인천에서 온라인으로 ‘스타트업을 통한 스마트시티 혁신’이란 주제로 ‘2021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스마트시티 국제 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이날 심포지엄에서 첫 번째 기초강연에 나선 플뢰르 펠르앵(Fleur Pellerin) 프랑스 전 디지털경제부 장관은 프랑스 스마트시티 분야 트렌드 및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목받은 스타트업 서비스들을 소개하면서 “메타버스 등 한국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빛을 발할 분야가 많고 이에 대한 유럽

내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지금이 바로 한국 스타트업이 유럽에 진출할 적기”라고 조언하며 “한국의 많은 우수한 스타트업들이 유럽 무대에 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계 펠르랭 전 장관은 프랑스 스타트업 육성 정책인 ‘라 프렌치 테크’를 기획 추진했으며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3년 입각해 디지털경제, 통상담당 장관을 거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다.
- 세션 3에서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프렌치테크 서울 솔로몬 무스(Solomon Moos) 대표는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오랜 문제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스타트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과 관련 한국과 프랑스는 유사한 점이 많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편, 이날 행사에서 줄리앙 카츠(Julien Cats) 주한 프랑스 부대사는 축사를 통해 “혁신의 나라로 변하고 있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글로벌 도시인 인천이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도시의 혁신을 논하는 자리가 마련돼 의미가 크다”며 “코로나 시대에 기술을 통한 연결 그리고 탄소중립에 대한 글로벌 이슈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이 중심에 스마트시티와 스타트업 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두 번째 기조강연자인 파스칼 호게(Pascal Hoguet) 캡제미니 센터장은 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전문가 육성과 교육에 대한 방법을 통해 스마트시티 전문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본 행사의 2부에서는 △도시 계획과 정책 △지속가능한 스마트 도시 △스타트업 기술과 혁신 등 3개의 세부 주제별로 전문가 세션이 진행됐다. 세션1에서 에르베 보기운(Herve Boisguillaume) 프랑스 환경 및 영토계

획부 담당관은 프랑스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를 위한 프랑스 공공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인천글로벌캠퍼스 스탠포드 한국센터 김소형 센터장이 나서 스탠포드 연구소에서 인천 송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연구 내용을 소개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 마지막 세션에서는 프랑스와 인천의 스타트업 육성 클러스터 사례를 중심으로 크리에티브 벨리 반기안 상무와 인천 스타트업파크 심원보 센터장이 발표를 맡아 양국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의 스타트업의 피칭도 진행됐다.
- 이원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부대행사로 진행된 프랑스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기관인 ‘비즈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와의 스타트업 육성 관련 양해 의향서를 체결하며 “최근 몇 년간 스타트업 분야에 빠른 성장세를 이끈 프랑스의 정책과 경험을 나눴다는 점에서 이번 심포지엄은 큰 의미가 있는 행사였다”며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프랑스와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이 내실 있게 발전해 가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내딛은 혁신의 발걸음이 스마트시티와 스타트업의 미래를 밝혀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